

에너지 시장 분기 동향 (2011년 2분기)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3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6
1. 업스트림(Upstream) 산업	6
2. M&A 거래	10
III. 주요 이슈	11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해청 (3779-6670)
 hcllee@koreaexim.go.kr

< 요약 >

- (에너지 가격 동향) 4월말 중동사태 등으로 연중 최고치(WTI유 113.9달러, 4월29일) 기록 이후 달러화 강세,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6월말 3개월來 최저치(90.6달러, 6월27일) 기록
 - 천연가스 가격은 4~6월 사이 수요 전망 변동에 따라 mmBTU당 4.2~4.8 달러 사이에서 급등락 거듭
 - 우라늄 가격은 원전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 근접
- (에너지 가격 전망) 2011년 하반기 유가는 공급 확대 등으로 상반기 대비 하향 안정화되겠으나 신흥 경제국 수요 견조로 큰 폭의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럴당 95~100달러(WTI유 기준) 수준 전망
 - 2011년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은 mmBTU당 4.27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미 에너지정보청)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동향) 2011년 탐사활동도 2010년에 이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 2011년 1분기에 발견된 신규 유전 매장량은 약 75억 배럴로 2011년 탐사실적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기대
- (주요이슈 : 주요 자원보유국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중국, 호주, 중남미 등 주요 자원보유국들이 최근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해외자원 직접투자 및 수입국 다변화를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자원 의존도를 낮추어 자원보유국의 법/제도 변경 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정부차원에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자원보유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투자보장 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ODA 지원 등

I.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전망

1. 에너지 가격 동향

- (석유) 4월말 중동사태, 미 원유재고 급감으로 연중 최고치(WTI油 113.9달러, 4월29일) 기록 이후 달러화 강세,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6월말 3개월來 최저치(90.6달러, 6월27일) 기록
 - 4월 중순 이후 달러화 약세와 함께 미 원유재고가 예상 외로 급감하여 WIT油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4월말 연중 최고치 기록
 - 5월 초 미국 고용지표 악화, 달러화 강세, 예상외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가 급락하여 100달러 선 붕괴 이후 6월 초까지 97~103달러 구간에서 등락 거듭
 - 6월 중 경기회복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IEA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유가 하락세를 보이며 6월 27일 3개월來 최저치 90.6달러 기록
 - 미 원유재고 급감, 그리스 재정 위기 완화, 달러화 약세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95.4달러로 마감(6.30.)
- (천연가스) 4~6월 사이 천연가스 수요 전망에 따라 mmBTU당 4.2~4.8 달러 사이에서 급등락 거듭
 - 4월 중반 이후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급등(\$4.7/mmBTU, 4.29.), 5월 들어 재고 증가폭 확대, 수요 감소 전망으로 급락(\$4.2/mmBTU, 5.9.)
 - 5월 중순 이후 냉방용 수요 증가전망으로 급등(\$4.8/mmBTU, 6.2.), 6월 중 냉방용 수요 부진으로 급락(\$4.2/mmBTU, 6.23.)
- (전력용 유연탄) 일본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4월 이후 가격 상승세를 보인 후 5월 비수기 수요 감소 전망으로 하락, 5월 말 이후 냉방용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톤당 120달러로 마감(6.30.)
- (우라늄) 원전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에 근접

〈 주요 에너지 가격 추이 〉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09	2010				2011		연중 최저	연중 최고
			1/4	2/4	3/4	4/4	1/4	2/4		
유가 (\$/배럴)	WTI	79.3	83.4	75.6	80.0	91.4	106.7	95.4	84.3 (2.15.)	113.9 (4.29.)
	Brent	77.9	82.7	75.0	82.3	94.8	117.4	112.5	93.3 (1.7.)	126.7 (4.8.)
	Dubai	77.4	78.7	73.1	77.2	91.4	109.4	106.8	89.7 (1.5.)	118.3 (4.11.)
천연가스 (\$/백만BTU*)		5.6	3.9	4.6	3.9	4.4	4.4	4.4	3.8 (3.3.)	4.8 (6.8.)
유연탄(전력용) (\$/ton)		80.8	84.3	91.5	89.2	130.8	121.0	120.2	112.2 (1.25.)	131.4 (1.3.)
우라늄 (\$/lb)		44.5	42.0	41.8	47.0	62.5	62.5	52.2	49.8 (3.17.)	73.0 (2.14.)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주) 유가는 2010년 1/4분기까지 현물가격, 4월 이후 WTI油 선물 1월물(NYMEX)/브렌트油 선물 1월물(ICE)/두바이油 현물가격, 천연가스 선물 1월물(NYMEX), 유연탄은 리차드베이산(ICE), 우라늄은 NYMEX

* BTU : British Thermal Unit

2. 에너지 가격 전망

□ (유가) 2011년 하반기 유가는 공급 확대 등으로 상반기 대비 하향 안정화되겠으나 신흥 경제국 수요 견조로 큰 폭의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럴당 95~100달러(WTI유 기준) 수준이 될 전망

◦ OPEC 증산, IEA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등 공급 확대 전망

- 사우디 등 GCC 국가들의 증산의사 표명으로 하반기 OPEC 생산 증가

· 사우디는 이미 6월 생산을 전월대비 50만b/d 증가, 7월에는 추가적으로 약 100만b/d를 증산할 계획

- IEA 12개 회원국이 향후 30일간 일일 평균 200만 배럴, 총 6,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 예정(2011.6.23.)

◦ 2011년 석유수요는 신흥국 원유 수요 견조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증가율은 1.5%로 전년대비(3% 수준) 둔화될 전망

- 다만 MENA 지역 정정불안 확산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유가 추가 상승가능성 상존
 - MENA 지역 산유국가 정정불안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미국은 2차 양적완화 종료 후 당분간 유동성 회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임
- EIA(미 에너지정보청)는 2011년 세계 석유소비가 8,816만b/d로 전년대비 143만b/d 증가하며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98.4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월 전망치 대비 3.48달러 하향 조정(7월 전망)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단위: \$/bbl)

구 분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0년 평 균	2011년				
				1/4	2/4	3/4	4/4	평균
유 가	CERA ('11.7.7.)	Dubai	78.1	100.5	110.1	103.7	109.4	105.9
		Brent	79.5	105.0	117.2	108.3	111.5	110.5
		WTI	79.4	94.0	102.4	93.7	100.5	97.6
	EIA ('11.7.12.)	WTI	79.4	93.5	102.2	98.0	100.0	101.9
	PIRA ('11.6.28.)	Brent	79.5	105.0	117.4	113.4	119.2	113.7
		WTI	79.4	94.0	102.5	95.7	99.2	97.9

주1)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천연가스) EIA는 미국 천연가스 연평균 가격(Henry Hub 현물)이 mmBTU당 4.27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미국 천연가스 소비는 산업 및 발전부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0% 상승한 6백74억 cf¹⁾/d로 예상되고, 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6백54억 cf/d로 전망(7월 전망)

1)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II. 석유·가스 시장 동향

1. 업스트림(Upstream)²⁾ 산업

- (세계) 2010년 석유·가스 탐사 결과 210억 boe³⁾의 석유와 105 tcf의 가스 매장량 발견, 이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Kashagan 유전이 발견된 이래 가장 성공적인 해로 평가
 - 2010년 총 381개의 유전이 발견되었는데, 브라질, 이스라엘, 이란에서 발견된 다섯 개의 대형 유전 매장량이 2010년 발견된 전체 매장량의 50% 차지
 - 브라질 Santos 분지에서 발견된 두 개의 유전인 Libra(94억 boe), Franco(45억 boe) 유전이 대표적
 - 가스전의 경우 이란, 호주와 함께 이스라엘 연안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 이스라엘 연안에서 Noble Energy社가 거대한 Leviathan 가스전 발견
 - 2011년 탐사시추활동도 2010년에 이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
 - 브라질, 동/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근 탐사 성공 사례에 힘입어 탐사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1년 1분기에 발견된 신규 매장량은 약 75억 boe로 2011년 탐사실적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기대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정부의 자국기업 독려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 나이지리아 내 석유기업의 75%가 나이지리아 토착 기업이지만 이들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4%에 채 못 미치고 있어 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토착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석유회사(IOC)들이 토착기업에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음

2)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개발·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② 부문을 미드스트림(Midstream), ③ 이후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

3) boe(barrel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 배럴) : 각종 에너지를 원유 1배럴의 열량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 국제석유회사로부터의 자산 매입, 주변 유전 낙찰 등을 위해 토착기업들은 상당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나 나이지리아 자본 시장은 석유산업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자율이 매우 높아 토착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형편
- 이에 따라 토착기업들은 금융 접근성이 좋은 외국인 파트너들과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유전 또는 사업권(라이센스)을 획득하는 방안들을 강구
 - 이 경우 외국인 파트너는 회계 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선불로 지급되는 자금에 대한 자본비용 부담, Niger Delta 지역 보안 문제 등과 같은 리스크들을 고려해야 함

□ (호주) 호주에서 지난 10년간 약 90 tcf에 해당하는 가스전이 발견된데 이어 2011년에는 약 10 tcf의 가스전이 추가 발견될 전망

- 2011년 호주 서부 및 북부 연안에서 30개 이상의 탐사정이 시추됨
- 탐사기업들은 호주 대규모 가스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많은 기업들은 과거 성공적인 탐사를 했거나 현재 대규모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 호주 주요 LNG 수출 프로젝트들은 Chevron, Shell, ExxonMobil, Woodside 등 동지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유럽)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 海의 Skrugard 유망구조에서 2.3억 boe 상당의 대규모 유전 발견, 이는 최근 13년來 노르웨이 내 단일 개발로는 최대 규모

- 현재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Skrugard 구조에서의 유전 발견이 바렌츠 해 탐사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2020년 이후 바렌츠 해의 석유 생산량이 노르웨이 전체 석유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Skrugard 구조에서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석유기업(Statoil, Eni, Norway SDFI 등)들이 동지역 석유탐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Statoil의 노르웨이産 석유 중 Skrugard 구조의 생산 초년 도에 생산되는 석유가 15%를 차지하게 될 전망
- Eni는 바렌즈 해 및 노르웨이 해의 프런티어 지역 탐사에 집중하여 2020년 이후 Eni의 노르웨이産 석유 중 50% 이상을 동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동) 중동 및 카스피 해의 Sour Gas⁴⁾ 생산에 대한 관심 재조명

- Sour Gas(전세계 매장량은 약 500 tcf로 추정)는 기술 및 경제성을 이유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요 회복 움직임으로 Sour Gas에 대한 관심 재조명
- Sour Gas 생산 설비는 독성 및 부식성을 가진 황화수소 가스 처리가 요구됨
- 중동 및 카스피 해에서 진행되는 주요 Sour Gas 프로젝트에서 생산 단계 임박
-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UAE 등에서 진행하는 Sour Gas 프로젝트는 5년 내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이 지역에서 6.5 bcf⁵⁾의 가스 생산설비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
- 동 지역에서의 Sour Gas 개발 목적은 자국 내 에너지 수요 충당 및 석유 수익 극대화에 있음
- UAE는 3 bcf의 가스를 석유회수 증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의 급증하는 가스 시장으로의 수출을 꾀하고 있음

□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비전통자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

- 아르헨티나 Neuquen 지방정부는 곧 비전통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권 부여협상(Licensing Round)을 진행할 계획으로 기업들의 관심 주목
- 아르헨티나에 매장되어 있는 비전통자원 매장량은 대략 수백 tcf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치밀 가스(Tight Gas)⁶⁾ 생산이 이미 개시되었고,

4) 황화합물을 포함한 천연가스

5) 하루 10억 cubic feet

YPF, Total, Apache, ExxonMobil 등 국제석유회사들이 탐사·개발 활동에 참여

□ (중동) 이스라엘은 2011년 3월 30일, 석유가스 프로젝트 재정 조건 개정사항을 발표,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분비중 상향 조정과 초과이득세 도입

- 이스라엘 정부는 2009년 2월 Tamar 유전 발견 이후 재정조건 개정을 위해 2010년 4월 개정 위원회 설립
- 금번 개정으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서 이스라엘 정부 지분이 30%에서 52~62%로 확대
- 초과이득세 도입이 금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로, 프로젝트 누계이익이 초기 투자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시점에 부과

□ (호주) Shell이 호주 Prelude 가스전에 FLNG (Floating 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하역설비)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여 세계 최초의 FLNG 설비가 건설될 전망

- 지금까지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LNG 플랜트로 운송하여 액화가 이루어진데 반해, FLNG 설비는 해상 가스전의 가스를 설비 내에서 생산 및 액화를 하여 LNG선에 바로 선적하는 것이 가능
- FLNG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LNG 360만 톤, 콘덴세이트 130만 톤, LPG 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FLNG 설비로 인해 원격지에 있거나 소규모여서 경제성이 없었던 가스전의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6) 치밀 가스는 지하에서 생성된 가스가 공극률이 10% 미만인 치밀한 사암으로 1차 이동하였으나, 투수율이 낮아 2차 이동을 하지 못한 채로 지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가스임

2. M&A 거래

- (북미) Chevron은 Chief Oil&Gas와 Tug Hill로부터 펜실베이아 남서 지역 마셀러스(Marcellus) 셰일 지구 22만 8천 에이커 획득(2011. 5. 4.)
 - 양사는 거래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사거래와의 비교분석 결과 거래규모는 16~20억 달러로 추정
- (중남미) PetroVietnam은 ConocoPhillips로부터 페루 39 광구 지분 35% 인수 계획 발표(2011. 5. 16.)
 - 금번 거래는 ConocoPhillips의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의 일환이며 동사에 있어서 페루는 유일한 중남미 사업 운영 국가로서, 향후 중남미 사업을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높음
 - PetroVietnam은 지난 10년간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중심으로 해외 업스트림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온 바 있으며 금번 거래는 인수합병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III. 주요 이슈 -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 본 이슈는 Spot Issue(2011-03, 7월 26일 배포) 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자원세' 개혁

- 중국 자원세(資源稅)는 각종 천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별 자원 분포 및 광물별 매장량에 따른 기업 이윤 분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내 광물 채굴 및 소금 생산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목임
 - 중국은 1984년 자원세를 도입하여 현재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 원광7), 비철금속 원광, 염류, 기타 비금속 원광 등 7가지 품목에 대해 자원세를 징수하고 있음
- 자원세 도입 이후 징수범위 확대, 징수방식 개혁, 과세수준 상향조정 등 자원세 세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1984년 도입 당시 목적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채굴 자원 등급 간 수익 조정, 지방 재정수입 확대 등에 있었음
 - 1994년 1월 1일부터 보편징수, 자원세 징수방법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징수방식을 종량징액으로 변경함
 - 2010년 자원가격 급등으로 종량세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수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자원 부족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원낭비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부지역 일부 자원의 과세 방식을 종가정률제로 전환
 - 2011년 4월 1일부터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8)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
- 2011년 7월 중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제작한 <자원세 조례> 수정본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하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

7) 아직 채련되지 않은 채굴한 그대로의 광석

8) 희토류는 란타넘(La, 원소번호 57)부터 루테튬(Lu, 원소번호 71)까지 란타넘계열(lanthanoids) 15개 원소와 스칸듐(Sc, 원소번호 21), 이트륨(Y, 원소번호 39)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총칭하며 첨단 IT산업에 소량이지만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림

- 종량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바꾸는 방향을 골자로 하며 과세품목을 원유와 천연가스 외 기타 자원으로 확대 하고 대상지역도 전국 범위로 전면 확대하고자 함
-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2. 호주, '광물자원 임대세' 도입

-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음
- 철광석,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p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기존안대로 40% 세율을 적용함
- 호주 정부는 본 법안이 발효될 경우 최초 2년간 77억 호주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 중남미, 新자원민족주의의 일환으로 로열티 부과

- 200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석유·가스 자원보유국들이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을 늘리고, 외국 자원개발기업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신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취함
- 베네수엘라는 20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로열티는 16.6%에서 33.3%로, 법인세는 34%에서 50%로 대폭 인상함
- 볼리비아는 2006년 천연가스 1일 평균생산량이 1억cf⁹⁾를 초과할 경우 이윤의 82%(종전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
- 에콰도르는 2007년 OPEC 재가입, 석유법 개정으로 석유생산 초과수익 50% 회수에 이어 2008년 초과이윤세율 70% 상향 조정

9)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 최근 광물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중남미 광물자원보유국 정부 역시 자원개발기업에 수익 환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칠레는 2010년 10월, 칠레 지진 복구 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 법’을 개정하여 연간 판매량 5만톤(구리환산톤) 이상의 광산업체 로열티가 영업이익 4%에서 2010~2012년 동안은 4~9%, 2018년 이후에는 최대 1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자원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 호주 철광석/석탄, 중국 희토류/비철금속 등 자원세 인상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물가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산업의 생산비를 높여,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자원확보책 마련 시급) 자원보유국의 빈번한 법/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국내 자원개발기업과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해외자원 직접투자 및 수입국 다변화를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의존도를 낮추어 법/제도 변경 리스크 완화
 - 정부간 협력, 교류 증진을 통한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 조성
 - 자원보유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ODA 지원 등

<참고 자료>

1. www.koreapds.com
2. www.petronet.co.kr
3. Wood Mackenzie, 'Upstream Insight/M&A Service Deal Insight'
4. 에너지경제연구원,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2010)'
5. 산업연구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2011)'
6. 중국 및 한국 언론 보도자료 등